

「GIST 노조, 취임 1년 총장 평가 설문조사 배경 주목」

보도 관련 (2024. 8. 29. / 광주일보 보도)

< 설명자료 >



▲ GIST 행정동 전경

○ 보도 내용

- 광주과학기술원(GIST) 노조가 임기철 총장에 대한 취임 1주년 중간 평가 성격의 설문조사를 8월 27일부터 9일간 진행함. 前 집행부의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내부 제보자의 고발과 맞물린 시점이어서 귀추가 주목됨.

○ 관련 사실

- ① 지스트노동조합은 2024. 8. 28.(수) 오전 11시 17분경 교원·연구원·직원·학생 등 GIST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"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직원과 연구원, 교수, 학생 등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GIST 현 집행부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함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"며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안내함.
- ② 그러나 해당 설문조사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, 편중된 성향의 응답 중심으로 결과가 집계될 가능성이 존재함.
- ③ 또한 지스트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2024. 8. 29.(목) 현재 정규직 직원 120여 명에 불과하여, 교원·학생·기간제 근로자 및 비조합원인 정규직 직원 등 2,900여 명에 이르는 GIST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음. 현재 교원 대표단체로는 ▲교수평의회(회원 193명) ▲지스트 교수 유니온(조합원 35명)이 있고, 학생 대표단체로는 ▲대학원 총학생회(재학생 1,300여 명) ▲학사과정 총학생회(재학생 860여 명)가 있음.

④ 한편 지스트노동조합은 우리 대학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음.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번 설문조사는 조합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풀이됨.

No.	사건명	심급	결과	심문 기일
1	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	전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	노동조합 신청 기각	2024. 4. 15.
2	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	전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	노동조합 신청 기각	2024. 7. 26.
3	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	중앙노동위원회 재심	노동조합 신청 기각 (초심 유지)	2024. 8. 14.

⑤ 우리 대학은 전체 구성원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한 지스트노동조합이 검증되지도 않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설문조사 형식을 통해 불필요한 여론 조성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.